

- 렙토스피라 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급성 열성 질환
- 법정 감염병으로 가장 흔한 인수공통전염병(사람과 동물이 서로 전염시킬 수 있는 감염병)

주요 원인 및 감염 경로

- 설치류 및 동물의 배설물 또는 오염된 환경에 간접적으로 노출 - 수영 등을 통해 렙토스피라 균에 오염된 물 또는 오염된 물·음식 섭취
- 감염된 동물의 소변에 직·간접적으로 노출 또는 감염 동물의 조직을 다루거나 물리는 경우



렙토스피라증의 위험군

- 오염된 논, 밭 물에 장시간 발을 담그고 작업하는 농부
- 쥐가 많이 다니는 습한 토양이나 물과 관련된 작업장에 근무하는 광부
- 오수 처리자, 낚시꾼, 군인 등
- 가축과 관련된 일을 수행하는 수의사
- 낙농업 종사자
- 수영이나 캠핑 등의 오락 활동을 하는 사람



주요 증상

발병 제1기(3~5일간 지속)

- 갑자기 39도 이상의 고열과 함께 심한 두통과 눈 충혈, 근육통, 피로감, 구토와 메스꺼움
- 핀으로 찌른 것 같은 피부발진 - 심한 두통, 구역질, 구토 증상
- 매우 심한 근육통 - 가려움증을 동반한 발진

발병 제2기

- 가슴과 배가 아프고, 정신변화 등이 동반
- 목이 경직되고 구토를 하는 등 수막염 증상을 보이기도 하며, 목이 아프거나 기침과 약간의 혈담을 보일 수 있음

중증 감염

- 증상은 경증 환자에 비해 훨씬 심하고 여러 장기가 손상되어 10일 이내에 간과 신장이 부전 상태에 빠질 수 있음
- 치료하지 않으면 대개 사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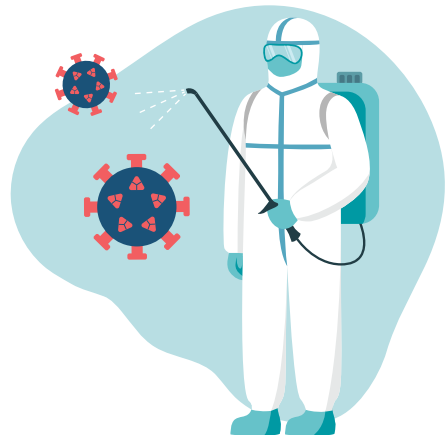
회복기

- 경증 감염자는 2~3주 후에는 전반적으로 증상이 없어지지만 피로감과 기분저하가 한동안 지속될 수 있음
- 중증감염은 장기 손상이 동반되므로 회복하는 데 수 주가 걸리며, 일부 환자는 장기 손상이 완전히 복구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, 회복 후 2-3개월 동안 기분의 기복이 심하거나 우울증, 정신병 등이 흔히 나타날 수 있음



예방조치
및 관리
수칙

- 물에서 작업하는 경우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모두 방수 드레싱(처치)을 해야 하며, 손이나 음식 혹은 의복을 통해 물이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
- 모든 식품과 음용수는 오염되지 않도록 합니다. 렙토스피라 균이 식품의 표면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생 야채와 과일은 깨끗한 물로 씻은 후 껍질을 벗기고, 감염된 동물의 고기는 반드시 조리한 후에 섭취할 것
- 모든 음용수는 안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끓여 마실 것
- 음식물은 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보관
- 홍수 시기와 이후 수주 동안 렙토스피라증의 증상이 발생하는지 모든 사람을 모니터해야 하며,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진을 방문할 것
- 처방된 약을 주의사항에 따라 철저히 복용



탄저병

Anthrax

근로자용

탄저병은 탄저균(*Bacillus anthracis*)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감염질환으로, 탄저균이 들어오는 경로에 따라 호흡기 탄저병, 피부 탄저병, 위장관 탄저병으로 구분

주요 원인 및 감염 경로

- 주로 초식 동물에서 발생하는 질병이지만 감염된 동물을 날로 먹거나 다루는 과정에서 피부나 호흡기를 통해 감염
- 피부 탄저병은 탄저균에 감염된 동물의 사체나 오염된 토양과 접촉하여 발생
- 위장관 탄저병은 감염된 동물을 날로 먹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탄저병의 가장 흔한 형태



주요 증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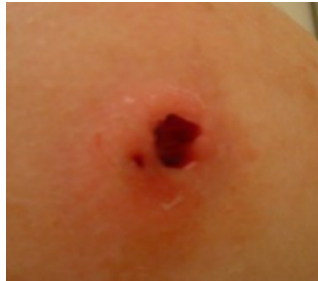
잠복기

- 잠복기는 대체로 7일 이내이나, 60일까지 다양함

증상

- 탄저균이 피부를 통해 감염되었을 때는 노출 부위의 가려움증, 부스럼 및 물집이 생겼다가 2일에서 6일 이후에는 고름이 형성
- 탄저균을 흡입하면 호흡기 탄저병이 생기는데 초기에는 폐렴으로 나타나며 3가지 형태의 탄저병 중 가장 중증도가 높고 사망률이 높음
- 위장관 감염은 감염된 동물을 날로 먹었을 때 발생하며 발열과 복통 등의 증상 발생

피부 병변



관리 수칙

- 직업적으로 동물을 다룰 때 양모, 모피, 뼈, 기타 동물 제품은 처리하게 전에 소독 필수
- 탄저병이 의심되는 동물 사체는 처리하기 전에 혈액을 채취하여 탄저병의 유무를 확인한 후 탄저균에 감염된 동물 사체는 소각
- 탄저균을 이용한 생물테러에 노출된 경우에는 예방목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할 수 있음



예방조치 및 관리 수칙

브루셀라증

Brucellosi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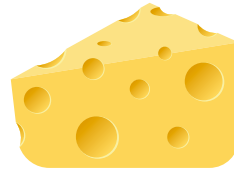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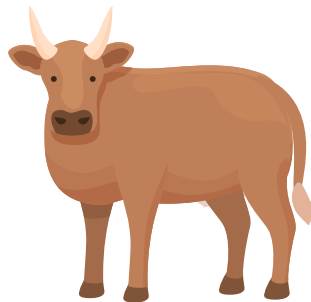
근로자용

브루셀라균에 감염된 동물로부터 사람이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 공통 감염증으로, 동물을 다루는 특정 직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병의 일종

주요 원인 및 감염 경로

- 사람 감염의 경우 경구, 흡입, 결막이나 상처가 난 피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피 감염과, 식품 매개(유제품) 감염
- 감염된 소로부터 분비되는 브루셀라균이 상처가 난 피부, 결막, 흡인 등을 통해 사람에게 감염
- 미생물 검사실이나 실험실에서 부주의하게 검체를 다루는 경우 병원균을 흡입하여 감염될 수도 있음

브루셀라증 전파경로



주요 증상

잠복기

- 급성 혹은 1~3주의 잠복기를 거쳐 서서히 발생

증상

- 발열, 오한, 식욕 부진, 두통, 근육통 등의 전신 증상 발현
- 간비종대나 다른 장기에 화농성 병변을 형성하여 심한 피로감이 나타나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
- 대개 8주 이내에 호전되나, 일부는 1년 미만의 경과를 거치며, 발열, 관절통 등이 발생할 수 있음
- 1년 이상 지속되는 만성 감염증의 경우 만성 피로, 우울증 등이 나타날 수 있음

고위험군

- 축산업 종사자, 의사, 인공수정사, 도축 검사원, 도축장 종사자, 실험실 근무자 등
- 작업장 내에 세척 설비를 구비하고 손소독제 등을 사용하여 수시로 손을 씻어 청결을 유지하고, 작업을 마친 후 작업장 내 샤워시설을 이용하여 몸을 씻도록 함
- 베이거나 긁힌 상처는 소독제로 소독하고, 붕대로 덮거나 접착성 밴드를 붙여 감염성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
- 감염성 물질이 점막(눈, 코, 입 등)에 들어갈 경우 즉시 흐르는 물로 충분히 세척
- 작업장(축사, 도축장, 살처분장 등) 내에서는 흡연이나 껌 씹기 및 취식 금지
- 작업복은 매일 교환하고, 열처리(삶음 또는 스팀)하거나 염소계 소독제 등을 이용하여 소독하여 재사용
- 고위험작업자는 채용 시 기초검사를 실시하고, 정기적으로 검진하여 임상증상 발현 시 신속하게 치료를 받도록 하며, 18세 이하 및 임산부는 고위험작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
- 브루셀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과 접촉하는 고위험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유산으로 배출된 태아, 태반, 생식기 분비물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합한 보호장구(보호복, 안면보호구 및 고글, 보호장갑, N95에 준하는 마스크, 장화 등)를 착용할 것



**예방조치
및 관리
수칙**



**관련 법령
등**

-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
직업성 질병(제2조 관련)

19. 동물이나 그 사체, 짐승의 털·가죽, 그 밖의 동물성 물체를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, 단독(erysipelas) 또는 브루셀라증(brucellosis)

[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]

- ▲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절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
- ▲ (예방조치)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3조
- ▲ (노출 후 관리)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4조